

高速變化時代の 大學教育

高 範 瑞

(翰林大 教養教育部)

흔히들 말하기를 '60年代 이후 인류는 未來學的 時代에 들어갔다고 한다. 미래학적 시대란 한마디로 말해서 高速變化의 時代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고속 변화는 두 가지 두드러진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斷切이요, 다른 하나는 衝擊이다. 그래서 미래학의 시대를 斷切과 衝擊의 時代라고 부른다. 斷切이란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과거의 그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살던 방식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타당성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현재가 과거에서부터 전혀 이질적인 것으로 단절되어 버리고 마는 것을 뜻한다. 衝擊이란 과거 같으면 몇 백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이 걸려야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변화가 불과 몇 년 동안에 혹은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전혀 낯설으며 생소한 것으로 닥쳐오기 때문에 충격을 주는 것을 뜻한다.

오늘의 時代가 가지고 있는 이같은 고속 변화는 인류의 생활 전역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인류는 변화를 의식하지 않고는 개인의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회와 국가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없게 되었다.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개인은 삶에 실패하게 되고 사회와 국가는 낙후하고 敗亡하게 된다. 教育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금 인류에게 도전해 오는 거센 高速變化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교육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변화를 외면하거나 고려에 넣지 않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물론이요, 그들이 운영하는 사회와 국가는 낙후를 면하지 못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敗亡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의 고속 변화는 교육에 대해서 一大變革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 變化가 완만했던 시대에 있어서의 傳統的 教育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엄격히 따질 때 변화가 전혀 없는 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靜態의 社會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같이 완만한 변화란 삶의 方式(way of life)에 대해서 별로 의의를 가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앞선 世代가 살았던 방식 그대로 살면 되고, 祖上이 취했던 생활 방법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모방하면 된다. 이것을 교육적으로 생각하면 교육은 祖上和 앞선 世代의 경험과 지식을 현재의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 결과 전통적 교육은 過去志向的 教育이었다. 과거지향적 교육의 핵심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의 傳達이요, 다른 하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記憶이요, 또 다른 하나는 전통의 경험과 지식에 대해서 새로운 제해석을 가하는 創意性이다. 그러나 이 세계의 창의성은 극소수의 學者나 研究家에 대해서만 요구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과거의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

이다. 그렇다면 被教育者의 입장에서 보면 傳統的 教育의 특성은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는 記憶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변화가 완만했던 시대의 傳統的 教育은 記憶爲主의 教育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 세기에 들어와서 教育은 이같은 기억 위주의 過去志向의 教育에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것은 美國의 進步主義 教育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명한 教育哲學者 존 듀이(John Dewey)가 제창한 데에서 비롯한 이 교육은 관심의 초점을 現在에 두었다. 다시 말해서 삶이 현재의 시점에서 직면하고 있는 사태의 이해와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전통적 교육이 過去志向의 인데 대해서 진보주의적 교육은 現在志向의이다. 교육적 관심의 대상이 이렇게 過去에서 現在로 바뀐 것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무의식적 혹은 반의식적 자각이라고 할 것이다. 당시의 사회적 변화가 변화 그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지난 날의 교육과 같이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만 집착하여서는 이미 다룰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심각한 사회적 변화가 발생했고 또한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진보주의적 교육 이론은 반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변화의 이같은 변동은 진보주의 교육으로 하여금 교육의 관심을 現在에 대한 이해와 현재 직면하고 있는 問題의 解決에 관심을 돌리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現在志向의 教育에 있어서는 學習의 目的이 그저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기억하고 습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같은 기억과 습득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의 사태를 이해하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그런데 '60年代 이후의 未來學的 時代 속으로 돌입하면서 이같은 現在志向의 教育에 의해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변화가 급속하게 되었다. 未來學的 時代의 고속 변화를 미래학자 알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생각을

빌려서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토플러는 그가 '80년에 출판한 저서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에서 인류 역사의 발전을 3 단계로 구분했다. 첫째는 '제1의 물결'이요, 둘째는 '제2의 물결'이요, 셋째는 '제3의 물결'이다. 제1의 물결은 農業社會, 제2의 물결은 産業社會, 제3의 물결은 後期産業社會를 말한다. 그런데 그는 제1의 물결의 기간을 數千年, 제2의 물결의 기간을 300년, 제3의 물결의 기간을 數十年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産業社會의 변화는 農業社會보다 10 배 빨라졌고, 後期産業社會는 農業社會보다 100 배가 빨라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게다가 後期産業社會에서는 사회 변화에 가속도가 붙는다. 그렇다면 後期産業社會에서는 産業社會가 100년이라는 세월을 소요했던 변화가 10년 혹은 5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고속적 사회 변화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 교육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記憶爲主로 전승하는 過去志向의 教育이나 현재의 사태 이해와 현재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現在志向의 教育에 의해서는 대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회의 고속 변화가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짧은 기간 동안에 시대에 뒤떨어진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의 생명이 단축되고 말기 때문에 妥當性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오늘의 고속 변화의 시대 속에서는 大學의 제학 시절에 배운 지식과 기술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는 쓸모가 없는 남아빠진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같은 고속 변화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은 어떠한 교육인가. 알빈 토플러는 그가 '70년에 저술한 「未來의 衝擊(future shock)」에서 高度産業社會가 요청하는 새로운 교

육을 ‘未來時制의 敎育(education in the future tense)’이라고 불렀다. 그는 未來時制의 敎育의 특성을 ‘對處能力(cope-ability)’ 혹은 ‘어떻게 배우느냐를 배우는(learn how to learn)’이라는 두 가지 말을 상용하여 표현한다. 對處能力이란 敎育이 학생으로 하여금 急激하게 변화하는 社會 現實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敎育은 단순히 기존의 經驗과 知識을 학생에게 전달하고 그로 하여금 그것들을 전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스스로 대처하여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배우느냐를 배우는’ 것은 그렇게 격변하는 사회 현실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 지식의 기억단이 아니라 변화했고 또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의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知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또한 創出할 수 있는 方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만이 계속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敎育은 過去志向의도 아니고 現在志向의도 아니며 未來志向의이다. 토플러가 오늘과 앞날의 敎育이 ‘未來時制의 敎育’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未來志向의 敎育이 되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이같은 未來時制에 대해서 그는 「未來의 衝擊」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더욱더 加速化되기 때문에 지식은 점점 더 수명이 짧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오늘의 ‘事實’은 내일에 가서는 ‘잘못된 情報(misinformation)’가 될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자료(data)를 배우는 것을 결코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이 그의 직업과 거주처와 사회적 유대 등을 계속 바꾸는 사회에서는 학습적 효율성이 엄청나게 중요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學校는 단지 자료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자료를 다루는 방법들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학생들은 낡은 아이디어들을 버리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또한 어떻게(how), 언제(when) 그것들을 바꾸어 놓을 것인가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배우느냐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같은 未來時制의 敎育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大學敎育은 심각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 高速變化의 社會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어떻게 배우느냐를 배우는’ 敎育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思考하게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스스로 知識을 찾고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敎育의 책임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思考의 可能性을 자극하여 발동시키는 것이요, 創造的 可能性을 깨우쳐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敎育이 요청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敎授와 學生 그리고 學生과 學生 사이의 相互作用이다. 인간의 潜在力 내지 可能性은 相互刺戟에 의해서라야 효율적으로 자극되고 촉발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獨立·自律的으로 學習을 하도록 과제를 부과하고 과제 수행을 지도하고 검사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大學의 현실을 보면 敎授와 學生의 비율이 높아져서 이러한 두 가지를 살릴 수 있는 敎育을 하기가 매우 힘든 현실적 여건 속에 있다. 게다가 助敎도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는 記憶爲主의 一方通行的 講義中心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敎育은 過去志向의 敎育으로서 오늘의 高速變化時代에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敎育이 이렇게 지난 날의 낡은 敎育 방식에 집착하는 한 우리나라 대학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未來時制의 敎育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하며, 또한 그러한 敎育을 할 수 있는 敎育적 여건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